

뮤지컬 '화려한 휴가' 日 공연 성사시킨 고바야시 하키루·야마다 히로키씨

역사왜곡 일본의 현실 되돌아본 계기됐다

민주화 위해 희생했던 5·18항쟁 알리려 기획

노래운동단체 '우타고에' 평화·민주·인권 노력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쿄 공연은 일본 노래운동 단체 '우타고에'가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다. 회원들은 1년여전부터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쿄 공연을 성공시키는 모임을 결성, 홍보에 나섰다. 제작한 전단만 8만여장, 시민단체, 직장,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팔고 공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회원들의 노력 덕에 5월31일~6월1일 도쿄 타이라 고토 극장(1200석 규모)에서 열린 세 차례 공연은 2500여명의 관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공연 내내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1일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고바야시 하키루(72)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해외교류위원장과 야마다 히로키(52) 사무국장을 만났다.

"굉장히 큰 행사를 무사히 치러 내 아주 기쁘다. 공연 내용은 100% 만족한다. 3000명 정도 관객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는데 관객수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한국이라는 나라, 광주라는 도시에서 33년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또 뮤지컬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게 참 힘들었다."

고바야시 위원장은 '화려한 휴가'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현재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절박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연을 추진할 때만 해도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광주의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우경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화려한 휴가'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커다란 역사도 있지만 그 바닥에는 바로 작은 풀뿌리 역사가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건 그런 풀뿌리 역사가 중요하다."

50년 전 우타고에에 가입, 1999년 이후 수차례 광주를 방문한 고바야시 위원장은 "현재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죄의식을 느낀다"며 "일본도 독일처럼 철저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48년 설립된 '우타고에'는 1945년 패전 후 정체성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의 억압된 의식을 노래

로 풀어내는 단체로 평화, 민주,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광주를 방문, 5·18전야제 등에 참여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15년전 처음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를 잊을 수 없다. 광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반대도 많았다. 전정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추구했던 우리였다. 하지만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게 요즘의 일본 정부다. 공연을 본 관객들이 일본 상상의 절박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 1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야마다 히로키)

'화려한 휴가'의 일본 행사 중 매일 공연장 로비에서는 우타고에 회원들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일 양국 교류회의 현장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 역시 모두가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도쿄=김미은기자 mekim@



'화려한 휴가' 일본 공연을 성사시킨 일본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고바야시 하키루(사진 오른쪽) 위원장과 야마다 히로키씨.

로 풀어내는 단체로 평화, 민주,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광주를 방문, 5·18전야제 등에 참여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15년전 처음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를 잊을 수 없다. 광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반대도 많았다. 전정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추구했던 우리였다. 하지만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게 요즘의 일본 정부다. 공연을 본 관객들이 일본 상상의 절박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 1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야마다 히로키)

'화려한 휴가'의 일본 행사 중 매일 공연장 로비에서는 우타고에 회원들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일 양국 교류회의 현장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 역시 모두가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도쿄=김미은기자 mekim@

로 풀어내는 단체로 평화, 민주, 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광주를 방문, 5·18전야제 등에 참여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15년전 처음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환대를 잊을 수 없다. 광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반대도 많았다. 전정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추구했던 우리였다. 하지만 침략을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게 요즘의 일본 정부다. 공연을 본 관객들이 일본 상상의 절박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 1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야마다 히로키)

'화려한 휴가'의 일본 행사 중 매일 공연장 로비에서는 우타고에 회원들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일 양국 교류회의 현장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 역시 모두가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도쿄=김미은기자 mekim@



'리더들이여, SNS로 소통하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이 '광주·전남 리더들이여, SNS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4일 오후 7시 서구 라마다호텔 3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박용현 소설북스 대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역의 리더들이 SNS를 통해 지역민은 물론 세계의 리더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세청, 전재국 탈세 검증 본격 착수

(전두환 장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정보 요청 검토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는 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전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전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한데다 아랍은행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역외탈세 조사가 들어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해당 계좌에 현재에도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다 상당량의 잔액이 있다고 해도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싱가포르가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이지만 계좌 정보 제공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재국씨의 해외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미납추징금 전담 추적팀'을 설치한 검찰의 추징금 추적·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 농어촌 20%가 30가구 미만 '미니마을'

10가구 미만 신안 가장 많아

전남지역 농어촌 마을 10곳 중 2곳은 인구감소와 이농 등으로 3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 농어촌 마을 6710곳 가운데 30가구 미만의 마을 수는 1450곳으로 21.6%에 달했다.

20가구가 채 되지 않는 마을 수는 518곳(7.7%), 마을 전체가 1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초미니 마을'도 103곳이나 됐다.

섬지역인 신안군이 10가구 미만 마을(37곳)이 가장 많았으며 장성이 10

곳, 순천과 여수가 9곳과 8곳이었다. 50가구 미만인 마을 수는 모두 3482곳(51.7%)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규모 마을 수는 2010년과 비교해 30가구 미만은 0.5%포인트, 50가구 미만은 무려 7.8%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 마을의 가구당 인구 수가 1.5명인 점을 고려하면 30가구 미만 소규모 마을 인구 수는 50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여기에 소규모 마을은 회관 신축이나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마을 공동사업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전남도 주요사업'에서 계속

감사원은 "사파리 아일랜드의 경제성 분석이 왜곡돼 현재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남도에 사업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09년 10월 동 용역업체와 7억1200만원에 경제성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일부 물가상승률을 누락시켜 B/C를 1.08로 끌어 올렸다. B/C가 사업 추진의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용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무조건 B/C만 따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SOC가 열악하고 사람이 적은 전남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완도군이 지난 10개 읍·면에서 196개 도서지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67개 무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적발됐다. 신지 동고항 방파제 시설공사(사업비 10억원)도 설계 과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수 부안교 구매 부당 수의계약과 부적정한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진도 관매도 음악의 섬 사업 등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 도로명 주소법, 전통문화 정체성 파괴하는 것"

정동채 전 장관 등 헌법소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법이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정부처장관 등 63명은 3일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다"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로명주소법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진권에서 파생되는 문화창유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다"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로명주소법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진권에서 파생되는 문화창유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됐다"며 "일제강점기 문화말살 정책에도 살아남은 법정지명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사라진 지명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도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변적인 것이다. 도로명만 남기고 지명을 폐지하는 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한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가온의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KT ● 중앙초교 ●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80130-증-26호

2013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 대체산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융자금 규모 : 50억원
 - 공단 대체산업융자 준비금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 또는 관광레저업 등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
 - ※ 1. 은행신규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 아하며,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 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이 가능해야 함
 - 2. 창업 및 이전기업은 당해 연도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해야 함
 - 3. 당해연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외함
- 지원내용

융자금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관련된 자금(세제공과금(VAT 등) 제외) (※ 단,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비 포함)
- 지원조건

구분	기 간 (거치/상환)	융 자 한도액	융 자 비 율	대 출 금 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3.2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 및 접수 관련 문의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지 역 진 출 실	연 락 처
	태 백 시 청	02-3702-6628
	삼 석 시 청	033-550-2106
	정 선 군 청	033-560-2438
	영 월 군 청	033-370-2282
	보 령 시 청	041-930-3355
	문 경 시 청	054-550-6762
	화 순 군 청	061-379-3041